

2024학년도 10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②	2	⑤	3	⑤	4	①	5	①
6	②	7	④	8	④	9	⑤	10	③
11	④	12	③	13	⑤	14	⑤	15	①
16	⑤	17	②	18	③	19	④	20	③
21	⑤	22	②	23	③	24	⑤	25	④
26	②	27	⑤	28	④	29	③	30	④
31	④	32	④	33	②	34	④	35	④
36	⑤	37	⑤	38	④	39	②	40	②
41	⑤	42	②	43	②	44	⑤	45	⑤

[화법]

1. [출제의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강연자는 도입부에서 ‘조선 시대의 궁궐에서 간관의 역할을 하던 것은 무엇일까요?’와 같이 질문을 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식 이해하기

3문단에서 ‘이 현관의 글씨는 조선의 제23대 왕 순조가 쓴 것입니다’라고 하며 임금이 쓴 현관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이 현관은 ~ 현관을 걸었습니다.’라고 하며 테두리가 없는 현판인 [자료 1]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지금 보시는 ~ 역할을 합니다.’라고 하며 테두리가 있는 현판인 [자료 2]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이번에 보시는 ~ 화려함이 돋보이죠?’라고 하며 봉이 있는 현판인 [자료 3]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이 현관의 ~ ‘사성문’입니다.’라고 하며 우형서 방식으로 쓰인 현판인 [자료 1]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분석하기

학생 3은 ‘건물의 이름만 ~ 알게 되었어.’라고 말하며 강연을 통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수정하였으나, 학생 1은 강연을 통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수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강연에서 현판에 ~ 어떻게 읽는지 궁금해.’라고 하며 강연 내용과 관련해 궁금증을 제시하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우리 현판이 ~ 알게 되어 뿌듯해.’라고 하며 강연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관련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3은 ‘하지만 그런 ~ 없어서 아쉬웠어.’라고 하며 강연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은 ‘박물관 자료집을 찾아봐야겠어.’라고 하며, 학생 2는 ‘구체적인 의미를 검색해 봐야겠어’라고 하며 강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탐색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 · 작문]

4. [출제의도] 진행자의 역할 이해하기

‘학생 1’의 네 번째 발화에서 ‘다음 시간에는 초고를 함께 검토해 보자.’라고 다음 시간의 활동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학생 3’이 ‘또래 압력이 ~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대’라고 하는데, ‘학생 2’가 ‘문제 행동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라고 이를 언급한 후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해’라고 하며 ‘학생 3’이 발언한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가)의 ‘학생 3’의 첫 번째 발화에서 ‘또래 압력이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고 있다. (나)의 1문단에서 ‘청소년기는 ~ 또래 압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서 청소년기의 특성을 연령별로 유형화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학생 2’의 첫 번째 발화에서 ‘개념을 밝히면서 글을 시작하는 게 좋겠어’라고 말하고 있다. (나)의 1문단에서 ‘또래 압력이란 ~ 사회적 압력을 말한다.’라는 내용으로 개념을 밝히고 있으므로 ‘개념을 찾아서 적어 줘야겠어.’라는 떠올린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적절하다. ③ (가)의 ‘학생 2’의 두 번째 발화와 ‘학생 3’의 두 번째 발화에서 각각 또래 압력이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나)의 2문단에서는 ‘연구에 따르면 ~ 행동 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한다.’라는 내용에서 학생 자치 법정과 같은 방식이 청소년의 행동 개선을 효과적으로 이끈다는 연구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겠어.’라는 떠올린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적절하다. ④ (가)의 ‘학생 2’의 세 번째 발화와 ‘학생 3’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또래 압력이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문화에 영향을 준 사례로 각각 ‘해외에서 청소년들이 주도한 건강 캠페인’과 ‘누리 소통망에서 진행되는 다회용 포장 용기 사용 캠페인’을 말하고 있다. (나)의 2문단에서는 ‘학생 2’가 말한 ‘건강 캠페인’을 제외하고 ‘학생 3’이 말한 ‘다회용 포장 용기 사용 캠페인’의 사례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글에서 다룰 내용을 선별해야겠어.’라는 떠올린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적절하다. ⑤ (가)의 ‘학생 2’의 네 번째 발화에서,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를 추가하자고 제안하고 있고, ‘학생 3’의 여섯 번째 발화에서,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로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 활동’을 말하고 있다. (나)의 3문단에서는 대화에 언급되지 않은 ‘멘토 멘티 학습 활동’의 사례를 내용에 추가하여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 활동’과 함께 다루고 있으므로 ‘다른 사례를 추가로 제시해야겠어.’라는 떠올린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고쳐 쓰기

㉠에서는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또래 압력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보기>에서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여 또래 압력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형성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의 꽃을 피우게 한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또래 압력이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3문단에서 제설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설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우선, 골목길이나 ~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로 답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조언에 따른 글쓰기

<보기>의 ‘폭설이 내리면 ~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를 통해 제설제 사용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나 제설제는 ~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에서 제설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자료 3]에 ‘제설제가 뿌려진 후에 ~ 세척해야 합니다.’에서 제설제 사용 이후 대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제설제의 적절한 사용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를 보면 제설제 사용량이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문단의 ‘최근 이상 기후로 ~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자료 2]에 ‘또한 □□시는 지역 주민들로 ~ 골목길 눈 쓸기 활동을 실시했다.’에서 지역 자율 방재단의 제설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3문단에 ‘골목길이나 건물 앞처럼 ~ 노력할 필요가 있다’의 구체적 사례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자료 1-㉢]에서 주로 사용된 제설제의 종류가 염화물계 성분이라는 것을, [자료 3]에서 ‘염화물계 제설제를 ~ 부식될 수 있습니다.’를 통해 제설제의 염화물계 성분이 도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1문단의 내용에 염화물계 제설제가 유발하는 문제로 추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자료 2]의 ‘제설 취약 구간 열세 곳에 ~ 열선을 설치했다’에서 도로 열선 설치를, [자료 3]의 ‘제설 기계 장비 사용이 ~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에서 도로 여유 폭 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3문단의 ‘정부에서는 제설제를 ~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이해하기

2문단에서 ‘오늘날에는 실제 발음에서 ‘ㄱ’과 ‘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실제 발음에서 ‘ㄱ’과 ‘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표준 발음법은 한글의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올바른 발음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실제 발음을 모두 표준 발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발음상의 관습’을 감안한다는 ‘전통성’을 고려하여, ‘이전부터 오랜 기간 구별되어 왔으며 단어의 의미 변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모음의 장단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두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닭이’를 ‘[다기]로 발음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탐구하기

㉠의 ‘같이[가치]’와 ㉡의 ‘얻기[얻:끼]’는 각각 구개음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단어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아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① ㉠의 ‘나가서(나가-+-아서)[나가서]’와 ㉡의 ‘퍼서(퍼-+-어서)[퍼서]’는 모두 모음 탈락이 일어난 단어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의 ‘뿔푸른[뿔푸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단어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아 ㉠에 해당하고, ㉡의 ‘바빠(바쁘-+-아)[바빠]’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 단어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의 ‘원래[원래]’는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아 ㉠에 해당하고, ㉡의 ‘반드시[반드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과 ㉡ 모두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㉒의 ‘답한[다판]’과 ㉓의 ‘삶[삼:]’은 각각 거센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단어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아 ㉔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높임 표현 이해하기

㉔은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격조사 ‘께서’,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법 요소 분석 중 주체 높임의 경우 격조사, 특수 어휘는 사용하고,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분석은 적절하다. 또한 객체 높임의 경우 격조사, 특수 어휘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는 분석은 적절하다.

㉑ ㉒은 주체인 ‘삼촌’을 높이기 위해 격조사 ‘께서’,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객체인 ‘삼촌’을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법 요소 분석 중 객체 높임의 경우 격조사, 특수 어휘에 대한 분석은 옳바르다. 하지만 주체 높임의 경우에는 격조사에 대한 분석만 옳바르게 하였고, 특수 어휘, 선어말 어미에 대한 분석은 옳바르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㉒은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격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법 요소 분석 중 주체 높임의 경우 특수 어휘, 선어말 어미에 대한 분석은 옳바르며, 객체 높임의 경우 특수 어휘에 대한 분석은 옳바르다. 하지만 주체 높임의 경우에는 격조사에 대한 분석이 옳바르지 않으며 객체 높임의 경우에는 격조사에 대한 분석이 옳바르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㉒은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법 요소 분석 중 주체 높임의 경우 격조사, 특수 어휘, 선어말 어미에 대한 분석은 옳바르며, 객체 높임의 경우 특수 어휘에 대한 분석은 옳바르다. 하지만 객체 높임의 경우 격조사에 대한 분석은 옳바르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㉒은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격조사 ‘께’, 특수 어휘 ‘여쭙보다’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법 요소 분석 중 주체 높임의 경우 격조사, 특수 어휘, 선어말 어미에 대한 분석은 옳바르며, 객체 높임의 경우 특수 어휘에 대한 분석은 옳바르다. 하지만 객체 높임의 경우 격조사에 대한 분석은 옳바르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출제의도] 시간 표현 이해하기

㉔은 어간 ‘가-’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앞선 시제를 나타내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㉒은 어간 ‘살-’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나중인 시제를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㉑ ㉒은 시간 부사어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나중인 시제를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㉑ ㉒은 어간 ‘하-’에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하여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㉑ ㉒은 어간 ‘번지-’에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하여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앞선 시제를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바미’는 ‘밤’과 부사격 조사 ‘익’가 결합한 것으로, 현대 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와 달리 끝음절이 양성 모음인 체언에 ‘익’가 사용되어 모음 조화를 따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조사’는 현대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ㅅ’이 표기에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㉑ ‘비저’는 현대 국어에서 ‘빚어’로 끊어 적기 하는 것과 달리 이어 적기를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㉑ ‘醫員(의원)ㄷ려’는 현대 국어의 부사격 조사 ‘한테’와 형태가 다른 부사격 조사 ‘ㄷ려’가 쓰였으므로 적절하다. ㉑ ‘쁘들’은 현대 국어와 달리 어두 자음군인 ‘ㅃ’이 쓰였으므로 적절하다.

[사회 · 문화]

[16 ~ 21] <출전> 양형우, 「민법의 세계」

16.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민법 규정이 있음을 밝히고 그 규정에 따라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양상을 다루고 있고, (나)에서는 불법행위 중 공동불법행위와 관련된 민법 규정이 있음을 밝히고 그 규정에 따라 연대 배상 방식과 개별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양상을 다루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이해하기

(가)의 2문단에서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법원이 입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㉑ (가)의 1문단에서 ‘손해는 불법행위 전후에 따른 피해자의 이익 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㉑ (가)의 2문단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㉑ (나)의 3문단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난 여러 불법행위가 우연한 이유로 하나의 손해를 일으켜 공동불법행위가 되는 때도 있는데’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㉑ (나)의 3문단에서 ‘우리나라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제로 배상한 경우, 초과 부담한 만큼의 금액을 다른 가해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나)의 3문단에서 ㉑는 ‘과실이 가장 적은 사람인데도 손해배상액 전액을 배상하게 된다면 특히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4문단에서 ㉑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가)의 3문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고려해 손해에 대한 부담을 배분하는 것까지를 법적 정의를 구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배분적 정의’라고 했으므로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㉑를 ㉑보다 정당하다고 평가할 것이므로 적절하다.

㉑ (가)의 4문단에서 ‘과실상계는 ~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으므로,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㉑와 ㉑ 모두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㉑를 ㉑보다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가)의 3문단에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㉑와 ㉑ 모두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책임을 나누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㉑와 ㉑는 모두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와 책임을 나누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㉑를 ㉑보다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나)의 1문단에서 ‘불법행위가 여러 명의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공동불법행위라고 규정한다.’라고 했고, ㉑와 ㉑는 모두 피해자가 여럿이고 가해자가 단독일 경우에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나)의 2문단에서 ㉑는 ‘과실이 경미한 가해자라도 ~ 손해배상액 전체를 책임져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적을수록 자신이 받을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4문단에서 ㉑는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만큼만 개별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방식’이므로 가해자가 적은 것과 손해배상액의 크기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9.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가)의 4문단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 판단할 때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으므로 ㉑의 이유가 과실상계를 적용할 때 동일한 기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에서 법원은 A 법인의 과실이 작다고 판결했지만 실제 배상할 금액은 지정해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나)의 2문단에서 ‘법원에서는 과실의 비율만 판단하고 각자가 실제 배상할 금액을 지정해 주지는 않’음을 통해 연대하여 배상하는 방식을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방식에서는 ‘다른 가해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단독으로 손해배상액 전체를 책임져야’ 하므로, B 사가 파산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A 법인이 단독으로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A 법인의 과실이 작다고 판결한 것은 A 법인이 단독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보기>에서 A 법인은 부주의로 인해 오류가 있는 경제 보고서를 작성했고, 법원은 A 법인과 B 사의 과실만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의 1문단에서 ‘과실은 자신의 행위가 ~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통해 법원은 A 법인의 부주의가 C 씨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㉑ <보기>에서 법원은 A 법인, B 사, C 씨의 과실 비율만 각각 정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나)의 2문단에서 ‘법원에서는 과실의 비율만 판단하고 각자가 실제 배상할 금액을 지정해 주지는 않’음을 통해 연대하여 배상하는 방식을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방식에서는 ‘법원이 판단한 과실의 비율을 ~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 A 법인과 B 사 각자가 배상할 금액을 합의하여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㉑ <보기>에서 법원은 A 법인과 B 사 각자가 배상할 금액은 지정해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나)의 2문단에서 ‘법원에서는 과실의 비율만 판단하고 각자가 실제 배상할 금액을 지정해 주지는 않’음을 통해 연대하여 배상하는 방식을 적용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㉑ <보기>에서 C 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했고, 법원은 C 씨의 과실도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의 1문단에서 ‘과실은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통해 법원은 C 씨가 투자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㉑의 ‘삼아’는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라는 의미이고, 이는 밑줄 친 부분의 ‘삼아’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하므로 적절하다.

[인문]

[22 ~ 26] <출전> 이정렬, 「도덕적 인격 형성을 위한 도덕적 정체성의 역할과 도덕교육적 함의」

22.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이해하기

1문단에서 콜버그의 인지 발달 이론이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콜버그가 도덕적으로 옳은 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㉑ 1문단에서 콜버그는 ‘도덕적 이해’가 ‘지식 구조’의 발달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고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

으로 도덕적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것, 즉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고, 3문단에서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자아는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며 '자아의 여러 특징들은 중심적인 것, 주변적인 것 등으로 위계가 정해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1문단에서 블라지는 콜버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 줄' 아는 것, 즉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져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핵심 개념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6문단에서 '자아 일관성'은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오며', '자신의 도덕적 이상과 일치된 행동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1문단에서 블라지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 줄' 아는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불우 이웃을 돕는 것이 옳은 행동임을 아는 도덕적 이해가, 불우 이웃을 돕는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자아의 능동성이 중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5문단에서 도덕적 자아 모델에 따르면 '도덕적 책임감'은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의무에 의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D가 외부의 요구에 의해 도덕적 책임감이 부여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개인마다 다른 자아 구성의 방식에 따라 자아의 여러 특징들은 중심적인 것, 주변적인 것 등으로 위계가 정해진다'고 하였는데, <보기>에서 A는 '성실성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자아를 구성하는 데 있어 '배려'를 '성실'보다 더 중심적 위치에 놓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5문단에서 '도덕적 책임감'은 '자아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의무에 의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보기>에서 B가 '자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생각하고 실천'한 것은 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도덕적 통합'은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려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보기>에서 C는 '정직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지키려는 노력을 지속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6문단에서 '선, 정의, 공평 등'이 '도덕적 범주'라고 하였고, 4문단에서 '도덕적 통합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사람일수록' '도덕적 이해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B는 '정직하게 살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고, C는 '정직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지키려는 노력을 지속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기에 B가 C보다 '정직'이라는 도덕적 범주를 자아와 통합한 정도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⑥에서 '추구하다'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어떤 것을 욕심내어 마음에 두다.'를 의미하는 '넌보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③에서 '억제하다'는 '감정이나 욕망, 충동적 행동

따위를 내리눌러서 그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⑥에서 '부여되다'는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가 주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④에서 '의하다'는 '무엇으로 말미암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⑥에서 '의미하다'는 '행위나 현상이 무엇을 뜻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과학 · 기술]

[27 ~ 30] <출전> 제임스 기어, 「재료역학」

27.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이해하기

2문단에서 '구조물을 설계할 때 ~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부재는 ~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유리는 대표적인 취성 재료로 ~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 허용하중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탄성계수는 재료마다 ~ 탄성이 크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하중에는 부재의 단면에 ~ 수직하중이 있'고 '수직하중은 부재를 ~ 압축하중과 인장하중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3문단에서 네킹 구간에서는 '파단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여 변형경화 구간에서는 파단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재료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인장 시험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만약 탄성 구간에서 '시편에 가해진 ~ 되돌아가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소성변형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시편은 탄성을 잃'으며 '소성변형 구간에서는 시편의 변형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네킹 구간에서는 ~ 완전히 끊어'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5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연성 재료는 ~ 허용응력을 구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의 이유가 허용응력이 항복응력이나 극한응력을 안전계수로 나눈 값이라는 내용은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1문단에서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 크게 설계해야 한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허용응력에 부재의 ~ 산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ㄴ의 단면의 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재료를 A로 교체하면, ㄴ의 허용하중은 A의 허용응력 70MPa과 ㄴ의 단면의 면적 5mm²를 곱한 값인 350N으로 산출되므로, 허용하중이 인장하중보다 크게 설계되어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허용하중은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부재에 허용되는 하중의 최댓값'이라고 하였고, ㄱ의 허용하중은 700N, ㄴ의 허용하중은 250N으로 ㄱ의 허용하중이 ㄴ의 허용하중보다 크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5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연성 재료는 ~ 허용응력을 구한다.'고 하였다. ㄱ과 ㄴ의 허용응력을 구하기 위해 A는 항복응력 140MPa을 안전계수 2로 나누어 허용응력 70MPa을, B는 극한응력 100MPa을 안전계수 2로 나누어 허용응력 50MPa을 산출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응력은 '하중을 단면의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시편의 단면에는 인장하중에 의한 응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3문단에서 '소성변형 구간에서 시편의 결정 구조 및 원자의 결합 상태에 변형이 일어나'

며, '소성변형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의 응력을 항복응력'이라고 하였다. ㄱ에 예상되는 인장하중 300N이 가해지면 인장하중에 의한 응력은 ㄱ의 단면의 면적인 10mm²로 나눈 30MPa이 되므로, ㄱ은 예상되는 인장하중에 의한 응력이 A의 항복응력 140MPa보다 작다. 따라서 ㄱ은 결정 구조 및 원자의 결합 상태에 변형이 일어나는 소성변형 구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⑤ 1문단에서 '구조물은 하중에 의해 파손되어 영구적으로 변형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 크게 설계해야 한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부재의 단면의 면적에 따라 허용하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ㄱ과 ㄴ에 예상보다 2배 큰 인장하중 600N이 가해질 경우, ㄱ은 허용하중이 인장하중보다 크므로 단면의 면적을 늘리지 않더라도 영구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반면, ㄴ은 허용하중이 인장하중보다 작으므로 단면의 면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영구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사]

[31 ~ 33] <출전> 박두진, 「낙엽송」

박남수, 「소동」

31.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의 '파릇한 새 순'과, (나)의 '푸른 바다'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시상의 전개 과정 이해하기

[F]에서 '물줄기'는 '뿌리'가 '주둥이를 박고' 있는 대상으로 나타날 뿐 다른 대상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울타리 안'에는 '한 포기 풀도 자라지 못하는 가뭄의 뜰'이 있다고 했고 이러한 불모의 상황은 [B]에서 '나뭇잎들이 보스라지'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C]에서 화자는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꿈 속'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 [B]에서 '불을 끈다'는 것은 이러한 '꿈꾸는 시간을 위'한 행위로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C]에서 화자는 '불길'을 지핀다고 하였는데, [D]의 '그슬린 검은 잿더미'는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F]에서 '뿌리'의 모습은 '지금 목을 축이고 있다'로, [B]에서 '뿌리'가 처한 상황은 '타는 목마름'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나)의 '거인처럼 치솟아 꿈 속을 밝'히는 '불길'은 '가뭄에 마른 현실의 시체에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재'를 위해 지핀다는 점에서 척박한 현실이 생명력 있는 세계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불길'이 '거인처럼 치솟'는다는 것을 계기로 화자가 현실의 척박함을 인식하게 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파릇한 새 순'이 '여름으로 자란다'는 것에는 봄에서 여름으로 변화하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새 순'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싱그러운 냄새가 뿜어' 만드는 '삼월의 뜰'에는 생명력 있는 세계가 형상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삼월의 뜰을 만드는' '삼월의 사상을 위하여'에 화자의 지향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홀홀 낙엽 진다'는 것에는 가을에 잎이 지는 청송의 모습이, '봄마다 새로 젊'다는 것에는 봄에 새롭게 자라는 '새순'의 모습이 드러나 소멸 이후 생명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나)의 '검은 잿더미 위에서' '푸른 바다가 번져'간다는 것에는 메마른 현실이 생명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으므

로 적절하다. ⑤ (가)의 ‘햇볕’을 입고 ‘이슬’을 마시는 것에는 ‘파릇한 새 순’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 드러난다. (나)의 ‘어느 샘’에는 이와 연결된 ‘가는 물줄기’가 ‘땅’을 적시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력의 회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지하층계’를 내려가 ‘어느 샘’을 인식하는 것에는 화자의 의식에 생명력 회복에 대한 바람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시가·고전수필]

[34 ~ 37] <출전> 정해정, 「민농가」 유희, 「박장대」

34.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는 ‘중엄하다 저 조세를 어찌 아니 두려울까’, ‘금년에 못 다 하면 명년 재초 누가 할꼬’ 등에서, (나)는 ‘아,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등에서 각각 물음의 형식을 통해 상황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5.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은 자신(비용)과의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해 상대(거북)의 열악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상대의 처지가 자신처럼 열악하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청자인 노동을 부르며 말을 건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은 자연물인 황충이 도적떼처럼 생기는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자신(거북)을 무시하는 상대(객)의 발언에 대하여 거북이 노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일정한 주견이 없이 남(세상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상대(비용)의 태도를 지적하는 모습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작품 속 인물 이해하기

키가 작고 허리가 굽은 재상에게 ㉠은 재상의 키가 크고 허리가 곧다고 말했으며, ㉡는 재상의 키가 작고 허리가 굽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은 황지에 이름이 적힐 수 있었으며, ㉡는 형벌을 받아 죽었다. 따라서 ㉠와 ㉡는 동일한 대상인 재상에 대하여 상반된 평가를 함으로써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가)의 화자인 사대부가 ‘농사’를 ‘천하 대본’이라고 하는 것에서 농사를 중요한 가치로 여겨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등장인물인 사대부가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고 하는 것은, 군자와 무두장이가 살생한다는 점에서 똑같다고 하는 거북의 말에 대하여 노하여 말한 것이다. 따라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무두장이의 삶을 낮추어 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화자인 사대부가 농부에게 ‘밭이랑에 좋은 씨앗 일궈 묵힐 자리 살’피고 ‘모춘’에 ‘때’를 ‘지키’라는 것에서 모춘이라는 시기에 맞게 농부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화자인 사대부가 농부에게 ‘악초’를 ‘제거’하는 것이 ‘전가의 급무’이며, ‘소인’을 ‘쫓’는 것이 ‘왕실의 큰 정치’라며 필요성을 함께 말하는 것에서 농사의 상황에 빗대어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비용은 ‘무두장이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다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거북은 ‘모두 살생한다는 점’에서 사대부와 무두장이가 ‘똑같’다고 반론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비판하는 대상과 다르지 않은 사대부의 위선적 태도를 지적하는 사대부 작가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화자인 사대부가 ‘더할 세

금’이 ‘무슨 일’이냐고 말하는 것에서, (나)의 거북이 ‘법을 교묘히 엮고 형벌을 멋대로 사용하는’ 상황에 대하여 등장인물인 사대부에게 말하는 것에서 당대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한 사대부 작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38 ~ 41] <출전> 박완서, 「서글픈 순방」

3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작품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겪은 사건이 드러나 있고, ‘그런 독사 같은 눈으로 노려보다니’ 등에서 주관적 판단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발화의 기능 파악하기

‘주인여자’가 ‘우리 영아를 냉랭하게 쏘아보았다’라는 것에서 ‘나’의 상황에 공감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는 이전에 ‘남편’이 한 말에 ‘딱하고 한심해 대꾸도 안 했었는데’ 지금은 ‘거드름을 부리고 싶’다는 것에서 ‘나’의 태도가 과거와 달라진 것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가 ‘집 장만하기 전에 아기를 낳는다는 일이 ~수치심으로 온몸이 불화로처럼 달아올랐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남편’이 ‘영아는 ~내가 당당히 안고 들어갈 테니 당신은 조금도 걱정 말라구.’라는 것에서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영아를 데리러 나서려는’ ‘나’의 바람과, ‘영아를 외할머니한테 두’자는 ‘남편’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인물의 의도 파악하기

‘남편’과 ‘나’가 ‘의논을 다시 해서’ ‘전세방을 구하기로 합의’한 이유는 ‘어디서고 구십만원짜리 독채 전세는 구경도 못 하고 다만 구십만원의 가치를 좀더 분명히 알아온 데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나’가 ‘친정 나들이’를 갈 때 주인여자에게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절망감을 느’낀 것은, 경제적 격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족의 정착만을 중시했던 태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없을 때 실컷 재미 봐야지’라는 ‘남편의 수작’ 때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사모님, 지금 보신 그 땅 눈 꼭 감고 잡아놓으십시오 ~누워서 떡 먹기라니까요.’에서 젊은 신사들이 사모님에게 큰돈을 벌 수 있으니 그 땅을 사라는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인식하던 세태가 드러나 적절하다. ② ‘그런데 재수 나쁘게도 첫번째 본 집에서 ~갓난애가 딸린 집은 싫다는 거였다.’에서 ‘첫번째 본 집’의 주인여자가 영아를 이유로 전세방 계약을 거부한 것을 알 수 있고, ‘애는 무조건 싫다니 ~단종수술이라도 하란 말인가.’에서 ‘나’가 이에 반발심을 표출하는 모습을 통해 주거 공간을 얻는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잔디 밟지 마세요.’, ‘부엌도 방도 넓고 ~상하수도 시설도 갖추어져 있었다.’에서 주인여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고, ‘영아는 이사 가는 날 ~조금도 걱정 말라구.’에서 ‘나’와 남편이 영아의 존재를 주인여자에게 숨기느라 세 식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간접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부엌도 방도 넓고 ~상하수도 시설도 갖추어져 있었다.’에서 남편이 전세방의 상태와 시설을 확인한 것을 알 수 있고, 식구를 묶는 주인여자의 말에 남편이 ‘냉큼 두 내외뻘’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에서 남편이 집의 물질적 조건을 고려하

여 살 곳을 선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42 ~ 45] <출전> 작가 미상, 「현몽쌍룡기」

42.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용흥 공자의 두 눈에는 가을 물처럼 고운 광채가 어리었다.’에서 ‘용흥 공자의 두 눈’에 어린 ‘광채’를 ‘가을 물’에, ‘소저가 조 상국이 왔다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 옥 같은 얼굴이 발그스레해졌다.’에서 정 소저의 부끄러워하는 ‘얼굴’을 ‘옥’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두 시비가 조 공자에게 정 소저가 ‘이평장 부인’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하’였으나 ‘이평장 부인이 이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났고 가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강변에서 방황하’였다고 하는 것에서 이평장 부인이 이사해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벽난과 춘앵이 ‘저희의 주인은 정참정의 딸로 외가에서 조 공자와 정혼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정 소저가 조 공자와 정혼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조 공자가 ‘너희들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 일을 처리할 사이에 소저를 보호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정 소저를 보호할 것을 명령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석공이 정 소저에게 ‘이제 조 상국이 밖에 와서는 너와의 혼인을 완전하게 정하고 너의 뜻을 알리고 하니’라고 하는 것을 통해 조 상국이 정 소저의 뜻을 알리고 한다고 말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정 소저를 만나기 위해 ‘석 학사 부인이 나오고 석공 부인이 정 공자와 함께 나와 소저를 보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 석공 부인과 정 공자가 함께 나와 정 소저를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의 특성 파악하기

[A]에서 벽난과 춘앵이 대화 상대인 조 공자에게 ‘우리 소저께서는 타향에서 떠돌아다니시다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일을, [B]에서 석공이 대화 상대인 정 소저에게 ‘완고한 아버와 어리석은 어미의 흥제에서 벗어나 목숨을 보전하여’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조공이 ‘정 소저의 일과 행동은 여자 중에 군자’라고 칭하며 칭찬하고 정 소저의 혼인에 대해 ‘이것은 신부와 의논할 말이 아니니 현형이 혼인을 관장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조공이 석공에게 혼인을 관장할 것을 부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가부장적 사회에서도 정 소저가 혼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정 소저가 ‘저 집에서 우리 집의 허물을 알게 되면 매우 부끄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친정가문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벽난과 춘앵이 ‘가내에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수많은 방법으로 정참정을 보채고 소저를 재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고난이 친정 식구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두 공자가 두 시비에게 정 소저의 사연을 듣고 ‘정 소저의 굳은 절개와 아름다운 행동은 깊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였다’라고 여긴 것을 통해 정 소저가 당대에 요구되던 여성의 덕목

을 갖춘 인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정 소저가 석공에게 ‘소녀의 도리로 차마 아버지를 속이고 혼인을 못 하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따르고자 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